

택사에서 내려서니 먼저 도착한 대사관 직원이 다가있다. 그녀는 배들이 정박해 있는 부근으로 나를 인도했다.

- 목선이 발견된 카나리아 제도에는 천문대가 있어요. 지난가를 천문대에서 외계 전파 신호를 포착해서 스페인 천문학계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지요. 생각해 보니 목선이 실종되었던 시기와 일주 비슷하더군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이상하게 이어가지가 맞아 들어요.

야크 정박장 너머 바지선이 보였다. 바지선에 매여, 다른 선박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익숙한 배 한 척이 파도를 받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옮겼고 한 발짝 뒤에서 대사관 직원이 따라왔다. 바지선이 가까워지면서 삼층, 검정 한글이 선명했다.

0310으로 시작하는 어선 고유번호, 소형선망 4.5톤, 갑판에 쌓인 그물, 대나무 낚시대, 아버지의 삼층호 그대로였다. 갑판 위, 파랑 여장에 시선이 닿았다. 나는 무릎으로 앉아 어항 뚜껑을 들추었다. 마을 앞바다 냄새가 밀려왔고 어릴 적,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서 울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나는 얼른 뚜껑을 덮었다. 대사관 직원은 삼층호와 나를 번갈아 가며 카메라에 담았다. 조타실 바닥에 깔린 빛바랜 장판이 보였고, 황갈색 담요도 보였다. 그리고 오래전 축구공도 거기 있었다. 등 뒤에서 대사관 직원이 자주 카메라 버튼을 눌러댔다.

추 구공이 학교 담장을 넘어 날아가 비탈을 굴러 바다에 빠졌지요. 아이들의 안타까운 눈이 표정으로 바뀌어 공을 찬 아이에게 날아들었어요. 담장 밖으로 공을 던진 아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요. 물살이 빨라서 파도에 실린 공은 먼바다로 갔어요.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발을 굴렀지요. 파도와 파도 사이에서 숨다 보았다 하면서 공은 자꾸 멀어져 갔어요. 나는 선착장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공이 바다에 빠지는 일은 가끔 있었고, 그럴 때 삼층호를 내어서 아버지는 물고기 잡는 뜰채로 공을 건져 올렸어요. 공이 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나는 아무래도 어깨가 으스스했어. 그날은 삼층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공은 빠르게 쓸려갔지요. 우리는 공을 포기할 수밖에 도리 없었어요.

다음날이었어요. 해안가 자갈들을 쓰다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깨려 잠을 붙들고 있었지요. 맨 살갓에 닿은 벼서끼리는 이불 휴층에서 잘 마른 낙엽 냄새가 났지요. 늦잠에 늦잠을 부르려 드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는 거 싫더니 사람들이 골목길에 나와서 웅성거렸어요. 궁금했지만 나는 잠 깨기가 싫어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허벅지 사이 베개를 무릎으로 더욱 감쌌지요.

- 고래다!
나는 눈이 번쩍 뜨인 거지요.
- 고래다!

나는 냇다 이불을 걷어차고 우뚝 일어섰습니다. 해변 자갈들 위, 먹빛 고래가 누워 있었어요. 나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고래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녀석의 지느러미는 바라듯 하늘을 향했는데, 그 공간에 하얗게 배가 부풀어 있었어요. 다크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봤던 고래를 정말로 내 눈으로 본 것이에요. 나는 놀라웠는데, 순간 그 큰 녀석 옆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날 바다에 빠졌던 축구공이 있었어요. 파도에 사탕린 공은 반질반질했지요.

고래를 바다에 보내기 위해 밧줄을 엮는 어른들 틈을 비집고 나는 공을 주우러 갔어요. 공에게 접근하면서 나는 고래의 눈을 보았지요. 내가 들어갈 만큼 큰 눈이었어요. 공을 쫓다가 갑자기 물 밖 세상에 불시착한 고래는 덩치에 맞지 않게 주눅 들어 보였어요. 나는 공을 품에 안고서 고래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고래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파도가 들어와 고래의 등을 찌셨어요. 삼층호가 줄을 끌

어서 고래를 바다로 견인했어요. 고래 등에서 물살이 뿜어졌고 무지개 가루가 삼층호 뺨천에 내렸어요. 고래는 선착장 너머에서 물밑으로 가라앉는 거 싫더니 꼬리로 파도를 때리며 포구에서 멀어져 갔어요. 나는 옆구리에 공을 끼고 고래의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삼 흥호는 카나리아 군도 라스팔마스섬 원양에서 스페인 해양 경비선 레이더에 잡히기 포착되었다. 발견 당시 삼층호는 표류 상태의 무인선이었다. 스페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 해양 당국에 삼층호의 실종 사실을 확인했다. 삼층호는 서해에서 돌연 사라졌고 123일 만에 북대서양 카나리아 해역에 등장했다. 4.5톤짜리 목선이 이역만리 바다에서 표류했다는데, 배는 흡집 하나 없고 갑판 위 어구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실종 접수 일로부터 123일이 지나서 라스팔마스섬 한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만이 삼층호의 사실이라고 해양경찰서 조사 담당이 말했다.

군 휴가 중 아버지의 작업을 따라나섰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바다와 하늘의 표정을 넘겨서 삼층호에 대한 이야기를 허락했지요. 하늘이 바다 가까이 내려온 봄날, 오후였어요. 삼층호에 오르니 어릴 적과는 달리 갑판은 한 뼘만 했습니다. 기관실 양쪽 통로를 따라 쌓아둔 그물과 사러 둔 밧줄 더미가 갑판을 차지해서 작업 공간에 여유라곤 없었어요. 좁은 그 공간이 아버지의 사무실인 셈이었지요.

동트는 바다 위로 금빛 길이 생기고 그 길을 가르며 삼층호가 귀항할 때, 아버지는 바다의 노동을 홀로 감당해서 햇살에 반짝이는 비늘을 뒤집어쓰고 왔어요. 파도에 난반사 된 햇살이 아버지가 쓴 모자챙 아래 주황빛으로 어른거렸고, 아버지의 눈썹에는 마른 땀이 비름으로 번져있었어요.

쓸쓸한 노동의 흔적은 아버지의 팔뚝 핏줄에서 오롯했지만, 불볼락과 보리 농어 댕 마리가 노동의 성과였습니다. 나는 어구에 걸터앉아 아버지의 하루를 막연히 생각했지요. 내 생각은 추상에서 곁들 뿐 아버지와 바다의 실질에 가 닿지는 못하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조타실에 서서 엔진을 작동시켰습니다. 굉무늬에 스크루가 물속을 휘젓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나는 열리는 바다 쪽으로 자세를 바꾸어 앉았습니다. 엔진이 물살을 뒤집어내자 목선은 고요한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삼층호가 가른 바다는 이쪽과 저쪽의 물색이 달라서 같은 바다가 아닌 것 같았지요.

심어 본 밧줄을 가니 거기가 아버지의 일터였습니 다. 일터가 막막해서 일의 시작과 끝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요. 깃발이 꽂힌 부표가 보이자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아버지는 모자챙을 눌러쓰더니 갈고리 달린 막대기로 부표를 걸어 올렸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일을 거들었어요. 시늉 정도였겠지만, 아버지는 마다치 않고 그물 한쪽을 내어주었지요. 아버지가 목속 그물을 올리면 나는 끌어서 그물을 쟁었어요. 어껏죽지와 등골에 전기가 튀었지요. 쟁이는 그물코에 아가미가 꽂힌 물고기들이 파닥거렸어요. 볼락, 상대, 우럭 뒤 이런 가까운 바다 생선들이었지요. 아버지의 두 다리는 원래부터 배의 일부인 듯했는데, 나는 자꾸 뒤로 나동그라지는 것이었지요.

그물 일이 끝나자 아버지는 어항에 생선을 살려두고, 도마와 칼을 내어 회를 만들었어요. 막 된장에 찍어서 먹는 회는 달고 달았지요.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도가 높이 튀었어요. 나는 조타실에 몸을 밀어 넣었지요. 조타기 위 벽면에 음력 월패가 표기된 달력과 동그 벼시계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 다. 아버지는 달력에 그달에 걸리는 물고기 이름을 적어 두었는데 도다리, 농어, 주꾸미가 적혀 있

었어요. 벼시계가 멈춰 있어서는 조타실 하단 서랍장에서 새 건전지를 찾아서 바꾸었습니다. 사 둔지 오래되어 방전되었는지 새것을 넣었는데도 초침이 서너 바퀴를 못 가 멈췄어요. 부쩍 시계가 서버린다고 아버지는 다가서는 옥자에 눈을 두고 말을 했지요.

군에 복귀하는 날, 나는 새 시계를 삼층호 조타실에 걸고 새 건전지를 서랍장에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슬며시 갑판으로 나가셨지요. 시계를 조타실 벽에 걸어 두면서 나는 아버지와 삼층호의 바다가 무사하기를 바랐어요.

다 수 전문가 사이에서 생긴 전체는 해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현실적으로 무난한데, 어쩌자고 인공물체라는 엄청난 화두를 던지는 것인가. 주장을 뒷받침할 인공신호를 탐지했는가.

기자석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발표자가 질문에 답을 했다.

- 해상이라는 의견은 인류를 안심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의 태양계 탈출 가속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은가. 물리적 힘을 더하여 가속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인위적 전파 신호를 수신하지는 못했다. 다만 지적 생명체의 물체라면 기술적으로 전파를 은폐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충분히 쉬운 일이다.

발표자는 화면을 넘겼다. 푸른 빛을 품은 기묘한 비행체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질문의 방향이 다르게 전개되었다.
- 보이지 탐사선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수만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 수도 없을뿐더러, 올 이유도 없지 않은가.

- 문명 단계가 특이점에 도달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심지어 어렵지도 않다. '그 무엇'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항성계를 장악한 문명이려면 원충을 창출하여 공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 막대한 에너지원의 소멸이 포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은하에서 관측되지 않아서 논하기는 어렵다. 공간이동보다는 암흑물질(Dark matter)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말하고 싶다.

암흑물질이 중력에 반응한다는 것은 합의된 이론이다. 중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실체'를 상징하는데 이 말은 우주 공간에 군데군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이 장애물은 태양 같은 천체일 수도 있고 구름처럼 흩어져 은하 전반에 등성 등성 분포할 수도 있다. 인류는 아직 암흑물질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암흑물질 맵핑을 완성한 어떤 문명이라면 암흑물질의 중력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열린 공간을 지나다닐 것이다.

그래서 왜 왔는가, 이 질문이라면 오히려 만만치 않다. 과학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 말은 <콜럼버스는 왜 갔는가>와 같은 말일 것이다. '그 무엇' 이후 어찌 될 것인가, '그 무엇'이 타 항성계에서 건너온 인공물체인지, 혹은 우주의 어떤 불가해한 현상인지 불분명하지만, 두 세계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각자의 문명을 전개해 왔다. 상호 부재 상태였다. 서로를 목격하는 순간, 어쩌면 지금일 수 있다. 일면식 없는 두 세계는 하나의 우주에 편입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위험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15세기는 자족과 낭만의 끝을 알리는 서막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과학계가 다시 입장을 내었다.

- 전문가들의 대체적 합의는 거듭 말하거니와 해상으로 판단한다. '그 무엇'이라는 주장은 빈약한 가설이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과학은 가능성 제로에 수렴하는 편에 있지 않다. 설사 인공물체일지라도 외

계문명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상징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과학계 입장은 외계 인공물체일 가능성 제로를 언급했는데 과학이 점성술이 아닐진 데, 입장문의 마지막 문장은 또 무엇이나는 언론의 질타에 직면했다.

한 국으로 귀국하기 전날, 대사관 직원과 바르셀로나 항구를 걸으며 나는 삼층호에 대한 이렇저런 기억을 길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와 녹취 앱을 열고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와 삼층호의 바다, 지나간 시간의 밧줄을 나는 조심스럽게 당겼다. 바르셀로나 해안에서 후퇴한 곳에 우뚝 솟은 동상이 눈에 들어왔다. 콜럼버스 동상이었다.

새 벽에 아버지는 어김없이 삼층호를 몰아 어장으로 갔다. 기름을 부어 놓은 듯 물살은 보드랍고 느릿했다. 어항에 도착한 아버지는 삼층호 엔진을 중립에 맞추었다. 조타실 벽에서 새것을 꺼내어 벼시계 건전지를 교체했다. 야광을 머금은 빛이 조타실 창에 어른거렸다. 아버지는 갑판으로 몸을 내어 빛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먼바다에서부터 오로라가 밀려오듯 파도가 삼층호 쪽으로 다가왔다. 다가선 파도가 부풀었고 고래가 푸른 대가리를 내밀었다. 만질 수도 있을 듯 가까이 다가온 고래가 삼층호 주변을 천천히 맴돌고 등줄기에서 물줄기를 뿜아 올렸다. 무명한 물줄기가 바다 위에 항광 장막을 펼쳐냈다. 장막 너머 배 한 척이 윤곽을 드러내었다. 배 이름에 적힌 선명은 덕성이었다. 아버지는 실눈으로 덕성호를 응시했다.

장막 너머 갑판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놀라움에 아버지는 뛰다시피 성큼 뱃머리로 갔다. 아버지는 두 번 세 번 손바닥으로 눈을 비벼 가며 대상을 살폈다. 이장이 분명했다. 반가움에 아버지는 덕성호 쪽에 대고 소리쳤다.

- 이장님!
고래가 수면 위로 솟구쳤다. 형광 파도가 흩어졌고 다시 모였다.

장막 저쪽에서 건너오는 말은 없었다. 아버지는 조타실로 돌아가 엔진을 작동시켰다. 벼시계 초침이 완전히 멈추어 있었다. 형광 장막이 울타리처럼 바다 이쪽과 저쪽을 구별 짓고 있었다. 아버지는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이장은 바다에 부유하는 물체를 걸어 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망원자식 덕성호 쪽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덕성호 갑판에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폐기물이 수북이 쌓여있었고 작은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다. 쓰레기를 분쇄하는 장치도 보였다. 저쪽 바다에서 이장은 아마도 바다의 환경 파수꾼인 듯했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목청을 높였다.

- 이장님!

이장은 장막 너머에서 작업에 몰두할 뿐이었다. 덕성호와 삼층호 사이에서 고래가 울음 울었다. 물속에 내려둔 아버지의 그물이 이장의 작업에 걸려들었다. 이장은 아버지의 그물을 폐기물 건듯이 당겨 올렸다. 그물코에 금빛 물고기가 가득 보였다. 이장은 물고기는 바다에 돌려보내고, 그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물의 열개를 지탱하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아버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장은 더는 끌려 오지 않는 그물을 포기하고 갑판에 걸어 올린 그물 끝부분만 끌어 내었다. 이장의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자 항광 장막이 덕성호를 감싸고 커다란 거품을 만들더니 파도에 실려서 떠갔다. 고래가 대가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아버지는 이장이 밧줄을 끊어 내어 훼손된 그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해가 솟아 바다에 윤슬

이 일었다. 조타실 벼시계 초침이 움직였다.

망 원경을 탑재한 발사체는 남아메리카 프랑스로 향하여 우주 센터에서 발사되었다.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망원경은 발사체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태양광 전지판을 펼치고 우주 시공간의 오르막을 향해 나아갔다. 오르막의 끝은 중력 평행의 언덕이었고, 거기가 라그랑주(L2)였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되는 라그랑주 지점은 5개가 있는데, 라그랑주(L2) 지점은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보다 4배 정도 먼, 우주 공간이었다. 거기서 망원경은 태양을 등지고 심우주와 대면할 것이다. 박빙 후 역압의 시공간에 뿌려진 희미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여 우주에 관한 통찰을 확보하는 것이 인류가 망원경을 쏘아 올린 목적이었다.

중력이 파놓은 시공간 언덕을 오르면서 망원경은 NASA 관제센터의 원격명령에 따라 차폐막을 세우고, 종이처럼 접힌 대형 렌즈를 펼치면서 한 달 간의 항해를 완수했다. 망원경이 중력 평행 공간 라그랑주(L2)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나는 인형 비행기가 몸을 실었다. 비행기는 오후 1시에 바르셀로나 공항을 이륙했다.

라 스파마스 천문대에 전파 신호가 4개월 만에 다시 포착되었다. 지난 가을에 수신한 전파 신호와 주파수대역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전파 송출 방향을 폐기수사자리 적색왜성으로 특정 지어 허블 망원경 관측을 의뢰했다. 허블 망원경은 행성이 별의 순간을 지나갈 때, 별의 미세한 밝기 변화를 관측하였다. 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골디락스 존에서 모항성을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 주기 123일로 제시되었다. 행성의 대기 성분 분석 결과 지구와 닮은 물 분자와 메탄이 포함된 것으로 예측되었다. 천체물리학자들은 바다 행성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 라그랑주(L2) 지점에 도착한 우주 망원경은 렌즈 정밀 조율이 6개월여가 소요될 예정이다. 라그랑주(L2) 우주 망원경이 본격적인 관측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이 행성에 대한 정보를 인류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행성 대기에 물과 메탄 성분이 검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라그랑주(L2) 우주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외계 생명체 존재의 스모킹건 관측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NASA 관계자가 CNN 인터뷰에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인 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시간은 두 시간여 짧았다. 기내 창에 구름이 비스듬히 걸렸고 날개 엔진 아래로 하늘색과 물색이 겹쳐지면서 두 개의 바다가 미러링 되었다. 아래 바다에서 아버지의 삼층호가 조업했고 고래가 잠수했다. 어릴 적 낚시배를 끌고 하늘로 날아갔던 물고기 바다는 두 바다를 쏘다녔고, 다른 바다에서 고래가 대가리를 내밀었다. 이장은 바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다. 앞 좌석 모니터를 눌러 비행기의 위치를 확인하니 서해 상공이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며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 삼층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बद라트 말이 없었다. 나는 사진 파일을 하나씩 다시 돌려 보았다. 조타실 사진이 보였다. 조타기 위 벽면에 시계가 없었다.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조타실을 검증할 때 미처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사진을 확대했다.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그었다. 곳고, 곳고, 다시 그었다. '삼층', '잠정 글자' 선택했던 사진이 온데간데없었다. '휴대전화 메시지'가 도착했다. 삼층호가 실종되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보낸 문자였다. <끝>

단편소설 당선 소감

“시공간과 심포 너머 잇닿아 있을 ‘우주의 바다’ 생각”

해녀는 부표를 끌어안고 숨을 고르며 휘파람 소리를 뿜어내었습니다. 파도가 노는 법은 없어서 해녀는 수면에서 분주했습니다.

해녀는 들숨을 머금고 물속으로 갔습니다. 두 다리로 허공을 크게 찼습니다. 해녀가 잠수해 들어간 숨구멍을 파도가 덮어서 바다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물 밖과는 달리 물의 안쪽은 돌연 둔중했습니다. 수면의 바다는 작은 바람에도 뒤채었지만 속 바다는 수면의 다급함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속 바다는 거대한 점액질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느릿한 그 공간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실려 있었고, 깃머리가 늘어진 해초들이 물의 흐름에 이끌렸습니다.

해녀는 갈고리로 해초를 걷어내면서



물속에 잠긴 것 바위의 밑둥치를 더듬어 나갔습니다. 말미잘이 추수를 내어 물을 댔고, 바위틈에 들어앉은 군소가 보랏빛 경외음을 터뜨렸습니다.

갯바위 밑둥치에 갈라진 틈을 갈고리로 긁으면 물속 찌꺼기들이 부엌계 부유합니다. 어수선한 시야 너머 해녀는 잠소리를 깨내어 바위를 발판삼아 수면으로 오릅니다.

햇살의 깃나뭇잎들이 마중하며 빛의 기둥을 세웁니다. 꿈만 같은 기둥을 안내 삼아 부표의 좌표를 확인하

해녀는 마지막 들숨을 물속에 내어줍니다.

운술이 바글거리고 해녀는 무사합니다.

제목을 써 두고 한참 지나 심표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사는 일의 모든 시공간과 심포 너머 잇닿아 있을 우주의 바다를 언제나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광주일보 관계자분, 장석주 선생님, 심사위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 전공 (동대학원 중퇴)

▲ 한국전력공사(2003~2022)

▲ 현재 한전CSC 근무

단편소설 심사평

“인간 세상과 천문 우주 과학계 풀이, 새로운 시도”

소설은 그 어느 문학 장르보다 현실에 밀착해서 투시하고 호흡하는 생명체와 같다. 이제 한국의 현실, 나아가 현대사는 12.3 내란 사태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다. 지금 우리는 이전의 현실 감각으로 소설을 읽고 쓰던 기류가 급변하는 예외 상태에 놓여 있다.

본상에 오른 작품들은 삶의 의미와 확장성에 대한 질문과 탐구에 치중해 있었다. 이중 '해저터널'과 '그리고 바다,'를 놓고 최종적으로 고심했다. '해저터널'은 남동생을 잃은 화자(누이)와 그 동생과 연인 관계였던 우진이 각자의 상실의 아픔을 안고 함께 통영으로 여행을 떠나, 여행지의 장소성(해저터널)을 매개로 그동안 몰랐거나 스쳐보았던 의문과 맞닥뜨리며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내용 전개와 흐름이 안정적인 가운데



데 군데군데 일상적인 감정이 들어 노출되어 있어 긴장감을 떨어트렸다. 안정적인 익숙함을 넘어서는 세로움을 찾기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바다,'는 우선 두 갈래 서사 운용과 각 갈래의 화법이 균형적으로 작동된 점이 돋보였다. 작자의 특권은 소재를 선택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가에 있다. 작품의 성취 수준, 개성(스타일, 새로운)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 일이다.

'그리고 바다,'는 인간 세상의 작은

현실과 천문 우주 과학계 사이에 놓여 있는 불가사의를, 시간적으로는 현재와 과거(유년),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이남의 작은 어촌과 지중해 라스팔마스 인근 바르셀로나를 병치시켜 풀어가고 있는데, 서사를 이끄는 두 겹의 층위가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새로운 시도로 보았다. 특히 유년기 어촌과 아버지에 대한 장면과 묘사는 작가의 자질을 확인시켜주는 데 묘자람이 없었다.

웅모자들에게 애정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수상자에게 축하와 함께 지속적인 정신을 버란다.

▲ 동이일보 신춘문에 당선

▲ 동이대 한국어문학과교수

▲ 작품집 '저녁식사가깁난다' 등 다수